

겨울에 핀 백서향 보러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오세요

- 상서로운 향기가 나는 백서향, 제주백서향 국립세종수목원에 활짝 -



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전시온실에 개화한 '백서향(좌)'과 '제주백서향(우)'

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류광수)은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전시온실에 백서향과 제주백서향이 개화했다고 8일 밝혔다.

백서향(*Daphne kiusiana* Miq.)은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(위기종 EN, Endangered)로 우리나라 남해안 도서지역에서, 제주백서향(*Daphne jejuensis* M.Kim)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특산식물이다.

백서향(白瑞香)은 상서로운 향기가 나는 흰 꽃이라는 뜻으로, 이름에 걸맞게 은은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향이 특징이다.

이번에 개화한 백서향과 제주백서향은 오는 3월까지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전시온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서비스본부 전시원실	책임자	실 장	박원순 (044-251-0143)
		담당자	대 리	김혜원 (044-251-0153)

